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연월일 : 2020. 6. 11.

발 의 자 : 전용기 · 전재수 · 이동주
임종성 · 김정호 · 송갑석
이원택 · 고영인 · 박용진
신정훈 · 강선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학생 2만여 명 중 99%가 넘는 응답자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

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4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재난에 따른 등록금에 관한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 감액 또는 환급의 비율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였을 경우 학생 전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납부 등록금 환급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시행 전에 납부된 등록금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1조의4(재난에 따른 등록금에 관한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 감액 또는 환급의 비율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u></p> <p><u>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였을 경우 학생 전원에게 지체없이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u></p>